

소련도서전시회의 교훈

얼마전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렸던 소련도서전시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각별한 의의를 느끼게 하는 귀한 행사였다. 이 행사가 비록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경문화재단이라는 사설 문화단체에 의해 기획된 것이고, 그곳에 전시된 책 역시 소련의 국립문예출판사라는 특정 출판사의 책에 국한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번역소개조차도 눈치를 살피야 했던 공산권 도서의 실물을 일반에게 공개한 최초의 대규모 전시회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우리사회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이러한 출판외적인 의의 외에도 이 행사는, 소련 출판물들을 통해 우리나라 출판의 현수준을 비교하고

가능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천여권에 이르는 책들을 문학, 예술, 아동, 학술 교과서, 사전, 기행사집집 등으로 분류하고 간략한 우리말 해설을 덧붙여 놓은 이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 판형의 다양함이었다.

어른의 엄지손톱만큼 앙증맞은 크기의 속담사전으로부터 신문판 크기의 책들까지 다양한 판형들은 그 책의 성격과 해당독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문학서적, 사회과학서적, 아동도서 등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동일한 판형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책들의 사정과 비교해볼 때 소련서적들이 지니는 판형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이 표지의 다양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표지에 대한 출판사들의 '신경쓰'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신경쓰'의 방향이 책 내용과 성격과의 상관성보다는 우선 눈에 띄는, 예쁘기만 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 책표지가 '팬시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소련책의 표지들은 소련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우리말로 된 해설보다 더 친절하고 감각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일러주는 '얼굴'의 구실을 넉넉히 해내고 있었다.

출판과 유통체계의 상이함, 표지 안에 담겨진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들은 접어두고 긴 세월, 먼 길을 거쳐 와 우리 땅에 선보인 소련책이 전해준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다.

'책은 독자를 위해 만든다'

—박남정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86호 / 1991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鏞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鏞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亨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浩洙 | 金榮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權鍾夏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瓊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田 | 李勝羽 | 李元龍 | 李重漢 |
| 李聖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巧圭 | 鄭義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鍾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車 |
| 韓相慶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 이야기

프랑스의 문학연구가 로베르 에스카르피의 저술 「문학사회학」(1958 초판, 1968 재판)은 양적으로는 자그마한 소책자이지만, 문학연구에 있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개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제시한, 매우 독창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까지의 문학연구가 주로 작가와 그 작품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데 반해, 이 책은 그밖의 측면이랄 수 있는 문학의 분배자(출판업자, 서적판매업자) 및 소비자(독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책의 제목은 '문학'의 사회학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출판'의 사회학, '책'의 사회학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출판업자와의 서적판매업자와 독자의 측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분석적 연구가 투입돼 있다는 것.

발행부수는 왜 중요한가

이번호에는 이 책의 서론 부분중, 책의 정의를 말하면서 독자의 수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발행부수보다는 부수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언급된 통계수치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논지의 이해를 방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텍스트는 민희식·민병덕 공동번역의 을유문

고판 「문학의 사회학」.

서적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오늘날까지 내려진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정의는 대단히 막연한 까닭에 이용할 수가 없다. 이르기를 "어떤 지적 여건을 나타내는 부호를 그 위에 표시한, 임기응변으로 접어 개거나 들둘 말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재료와 크기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버팀목."

리트레는 "손으로 베끼거나 인쇄한 페이지의 몇몇 접지의 모임"이라는 물질적 정의와 "적어도 한권을 이를 만큼 커다란 크기를 가진 산문 혹은 운문에 의한 정신적 작품"이라는 절반은 지적인 정의와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卷子'이란 말을 참조해보면, "제본된, 혹은 임시로 케맨 서적"이라고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지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실제에 있어 서적의 정의는 한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각관공서가 제각기의 정의를 한개 내지 몇개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재무성만 하더라도 세관용 정의와 국고용의 또하나의 정의가 있다.

1964년 유네스코의 총회에서는 서적을 정기간행물과 구별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통계학적 정의를 제창하였다. 이르기를 "49페이지,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비정기적인 간

행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의 법률은 49페이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레바논과 남아프리카에서는 다시 더 1페이지가 있어야만 한다. 덴마크에서는 60페이지, 헝가리에서는 64페이지, 아일랜드, 이탈리아, 모나코에서는 100페이지가 소요된다. 이와 반대로 벨기에에는 40페이지, 체코는 32페이지, 아이슬란드에는 17페이지로 만족하고 있다. 인도는 아무리 작은 소책자라도 서적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다. 영국의 정의는 재정적이어서 적어도 정가 6펜스의 간행물은 모두 서적으로 간주된다.

대체로 이러한 정의의 결점은, 서적을 문화적 교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의 대부분은 철도의 시간표를 서적의 카테고리에 넣으며, 라신느나 몰리에르의 한편 희곡의 학생판을 서적의 카테고리에 몰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중 어떤 것은 서적의 내용을 고려에 넣고 있지만 서적의 용도를 고려에 넣은 정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기묘한 일이다.

그런데, 서적은 '읽기 위한 기계'이므로 서적을 정의하는 것은 독서이다. 즉,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의

산물인 상상적인 것과 구체적 사물을 분출시키는 저자와 독자의 공보의 노력"이다.

베끼진 것이건 인쇄된 것이건 혹은 사진으로 촬영된 것이건, 서적은 언어를 보조함과 동시에 '뱃배로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한사람의 인간을 위한 서적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수요가 정의에 개입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통계적 단위는 '종수'이지 부수가 아니다. 1965년에 유네스코에서 출간된 통계도 특정한 나라의 부수만을 제시하고 있다.(...중략)

수입(번역에 의한) 및 반복(소련에 있어서와 같은 국내에서의 번역에 의한)을 계산에 넣는다면 종수에 의한 통계는 거짓해야 한 나라의 지적 생활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 작가들의 수요와 생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은 해 준다. 그러나, 그 나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독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부여해 주지 않는다.

독서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